(日刊) (第五版) 昭和十三年十一月三日 (木曜日) THE CHOSUN ILBO. (THE KOREA DAILY NEWS.) SEOUL (昭和七年九月三十日 第三種郵便物認可) 第六千二百八十一號 【一】

朝鮮日報 朝刊
本紙朝夕刊十二面
編輯兼發行人 方應謨 印刷人 金利澤(?)
發行所 京城府太平通一丁目六一 株式會社 朝鮮日報社

社說 政民兩黨의 前途

一

五、一五事件으로 말미아마 犬養內閣이 부서진뒤는 政黨의勢力이 一路 衰頹와 沒落의 구렁으로 떠러저 왓거니와 더구나 近衛內閣의 成立을 따라서 政黨의 存在는 一層 稀微하게 된것이 事實이다. 近衛內閣은 組閣時 形式的으로나마 民政、政友兩黨의 協力을 求하는 情例조차 깨트릴뿐이 아니라 閣僚의 銓衡에도 政黨을 全然 眼中에 두지 안햇스니 그뒤 政務次官과 參與官의 人選으로써 政黨側의 好意를 多少 사려고 하얏다고는 하지마는 그 好意가 도리어 政黨自體의 無氣力을 더 뚜렷이 들어 내게나 된 것이 아닐까고 疑心한다. 萬一 今年여름 政友會에서 總裁問題를 에워싸고 內訌의 波瀾을 이리키지 조차 안 햇던들 一般 世人의 記憶으로부터 政黨이란 이름조차 거의 이저버릴지도 모른다. 이제 이르러서는 아무리 政黨政治를 擁護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現下의 政局을 擔當하기에는 오늘의 政黨들이 너무나 無能코 無力하다는 것을 否認치 못 한다.

二

元來 滿洲國의 建設과 國際聯盟의 脫退를 보게 된 以後 政友나 民政이나 在來의 政綱政策을 修正하야써 새로운 國策의 遂行을 도모하는것이 當然하련마는 古色蒼然한 自己네의 主張을 그대로 가지어 써 오는데 이르고 잇다. 그러타고 兩黨의 鞏固한 聯合아래 政黨政治의 復活을 爲하야 奮鬪할 決意가 잇섯느냐고 하면 그러한 意가 잇서 보이지 안햇다. 今年五月頃 政友會의 몃몃分子가 小會派의 共鳴者와 合하야 大陸國策研究會를 組織코 거기 對한 調査研究를 行하리라고 하얏스나 何等의 實績이 업섯거니와 요사이 民政黨에서 政策의 大轉換을 꾀하야 이미 어느 程度의 成案을 어덧다고 하야서 政黨의 새 進路가 시작되리라고 보기는 자못 困難하다. 政權으로부터 漸次 멀어저 가는 政黨에는 內部의 軋轢만이 남아잇서서 日前政友會支部長有志들은 總裁問題를 再燃시키어 方今그 波紋이 어디까지 미칠까 注目을 끄을거니와 表面 平穩함을 보이는 民政黨에서도 現在의 町田總裁로서는 積極的活動을 도모하기가 어려운 點에잇서 숨은 苦悶이 업지안타.

三

더구나 政民兩黨에 對하야 가장 戒嚴을 要하는 것은 新黨運動의 歸趨如何이다. 現在의 政黨人을 網羅하야써 新黨을 組織한다고 果然 참다운 新黨이 될 수 잇느냐하는데 疑問을 가지는 사람이 업지 안흔 同時에 從順을 表하는 政黨에 對하야 卒然한 일을 가지고 挑戰할 必要가 잇느냐는데서 躊躇하는 사람도 업지 안흔 만큼 新黨問題는 다 擴大되지 못하고 잇슴에 틀림이 업스나 어느 때 어떠한 편으로부터 不意의 襲擊을 當하지 말란 법도 업는 일이다. 何如든 支那事變과 거기 對한 長期抗戰의 國策이 선 오늘날에 잇서서도 政民兩黨의 態度는 依然 模糊하고 朦朧한 느낌을 주게 되고 잇다. 지금 議會期를 압두고 政民兩黨에서는 다함께 若干의 活動을나타나이어 그 存在를 表示코자 하는 모냥이나 現下時局과 아울러 그對策에 對한 明確한 認識이 서지 안는以上 더 다른 무엇을 企待키는 困難하다고 본다.

不退轉의 帝國態度

征戰의窮極目的은 東亞新秩序建設
佳節卜하야 政府中外에聲明

【東京電話同盟】武漢陷落後의 新段階에 對應할 帝國不退轉의 態度를 中外에 闡明할 政府의 重大聲明은 明治佳節三日을 期하야 發表되엿는데 그全文은 如左하다

그리고 近衛首相은 聲明의主旨를 徹底히하는 同時에 政府의決意를 披瀝하야 全國民의 새로운 覺悟와 協力을 要望하기爲하야 三日午前九時十分부터 十分間 AK의 마이크를通하야 全國에 放送키로되엿다 放送局에서는 右放送을 錄音하야 同夜七時半부터 再次全國에 그소리를放送키로되엿다(寫眞은近衛首相)

聲明

只今 陛下의 御稜威에 依하야 帝國陸海軍은 廣東武漢三鎭을 攻略하고 支那의要域을 戡定하엿다 國民政府는 이미 地方의 一政權에 不過하나 아직도 同政府로서 抗日容共政策을 固執하고잇는限 그 潰滅을 볼때까지 帝國은 斷然코 矛를거두지안는다 帝國의 冀求하는바는 東亞永遠의安定을 確保할 新秩序建設에잇다 今番 이征戰究極의目的도 亦是 여게잇다 이新秩序의建設은 日滿支三國이 相携하야 政治、經濟、文化等 各般에 互助連環關係를 樹立하므로써 根幹으로하야 東亞의 國際正義確立、共同防共의達成、新文化의創造、經濟結合의 實現을 期하는데잇다 이것이야말로 東亞를 安定케하고 世界의進運에 寄與하는所以이다 帝國이 支那에對하야 바라는바는 이 東亞新秩序建設의任務를 分擔하는데잇다 帝國은 支那國民이 眞意를 잘理解하야써 帝國의 協力에 應하기를 期待한다 勿論 國民政府라도 從來의 指導的政策을 一擲하고 그人的構成을 改替하야 更生의實을들어 新秩序建設에 來參하면 조곰도 이를 拒否하려는바아니다 帝國은 列國도 또한 帝國의 意圖를 正確히 認識하야 東亞의 新情勢에 適應할것을 미더 疑心치안는다 其中에도 盟邦諸國從來의 厚誼에 對하여는 기피이를 感謝하는바이다 생각건댄 東亞의 新秩序建設은 我肇國의 精神에 淵源하야 이를 完成함은 現代日本國民에 賦課된 光榮스러운 責務이다 帝國은 必要한 國內諸般의 改新을 斷行하야 國家總力의 擴充을 圖하고 萬難을 排除하야 斯業의 達成에邁進치안흐면 안된다 이에 政府는 帝國不動의 方針과 決意와를 聲明한다

日獨防共功績者에 叙勳及賜杯吟味

【東京電話同盟】至尊하옵신聖慮에서는 日獨防共協定에 關하야 功績顯著한 有田外相以下 五十一名에 對하사 二日叙勳及賜杯의 御沙汰가 게시옵섯다 其中主要한者는 如左하다

外務大臣 有田八郎 授旭日大綬章
宗秩寮總裁 子爵 武者小路公共 勳一等授旭日大綬章
特命全權大使 東鄕茂德 [illegible]
同 [illegible]
外務省[illegible] 井上庚二郎 [illegible]
[illegible] 栗山茂 [illegible]
特命全權大使 陸軍中將 大島浩 [illegible]

梁鴻志氏 近近訪日豫定

【南京二日發同盟】維新政府行政院長梁鴻志氏는 일즉부터 日本訪問希望을가지고잇섯는데 今次의 第二回聯合委員會終了後 來十五日飛行機로 東京에 赴하야 十日乃至二週間豫定으로 朝野各方面有力者와 會見하고 維新政府樹立以來 日本政府로부터의好意와 絶大한援助를 謝禮하고 兼하야 今後一層의援助를 要請하는同時에 新支那建設 日支提携에對하야 隔意업는意見交換을行할터이라한다

事變目的의達成次 經濟統制强化難免
池田藏商相談話發表

【東京電話同盟】池田藏商相은政府聲明과同時에別個로長期建設段階에處할 財政經濟政策에對하야 談話를發表하야 國民의一層緊張과 協力을要望하엿는데 그內容은 如左하다

武漢攻略에 際하야 玆에衷心으로 祝意를表하고 삼가 御稜威를奉仰하야 忠勇한 帝國陸海將兵의 絶大한 辛苦에對하야 深厚한敬意를 表하는바이다 武漢攻略은 今次事變所期의 目的達成上 重要한一段階를 劃함은勿論이어니와 이로써 財政經濟政策의 根本에 變更이잇스리라고 생각하는者가잇다면 무엇보다도 甚한者이라하겟다 我國으로서는 事變目的達成에 努力할時期는 오히려今後에잇는 것이다 東亞의資源을 開發하고 產業을振興함은日滿支共存共榮의 基礎條件인同時에 我國將來의 發展을 期하는所以로서 이것이야말로 今後我國이 朝野一致의 努力으로 遂行할 東大任務인것이다 그리고 今後도 必要한戰鬪行爲와 倂行하야 長期建設、生產力擴充等의 事業을 支障업시 遂行함에는 多額의 物資及 資源을 必要로하므로 그需給의 調整을 期하기爲하야는 今後相當長期에 亘하야 經濟統制를 行할必要가 잇는것이다 따라서 政府로서는 國內生產의增加 資源開發及利用 物資配給及消費統制 物價調整 貯蓄獎勵 輸出增進 對外支拂節約 金의增產 廢品回收 發明獎勵及 利用等에 對하야 從來 取해오던 方針을 繼續하고 更히 此를 强化徹底하야 그効果를 一層擴大하지안흐면안된다 그리고 此等 諸般政策 特히 物資配給及 消費統制 物價調整等의 實施에 際하야는 各方面에 相當히不便을 齎來할境遇도 잇겟지마는 그成否는 今次 事變終局 目的達成에 至大한關係를 가지고 잇스므로 特히 一般國民의 深厚한理解와 協力을 엇고저한다 方今 明年度豫算에 對하야는 各省協力下에 編成을 急히하고잇는데 通常經費는 可及的으로 緊縮할 方針이나 現下에 잇서서의 內外諸情勢를參考하건대 今後歲出은 相當巨額에 達할것이고 따라서 公債發行도 多額에 達할것을豫期하게되니 國民으로서도 此際에 負擔輕減을 바랄 時期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要컨대 今後國民은 長期에 亘하야 經濟上의 各種不便을 忍耐치아니하면안된다 此는 決코 消極退嬰을 意味하는것이 아니라 長期建設의 困難을克服한 然後에 洋洋한 前途를 [illegible] 안된다고 생각하는바이다 (寫眞은 池田藏相)

明治節祭御儀 宮中에서嚴肅히執行

【東京電話同盟】十一月三日은 明治天皇의 御鴻業을奉唱 御遺德을 追慕하는 明治節의 佳辰 宮中에서는 四大節의 一로써 例年皇族을奉始하사 文武百官、外國使臣等을 부르옵시사 豐明殿에서 御賀宴을 여옵시는데 時局에 鑑하옵시는 思召로 今年에는 賀宴은 中止하옵시는데 이날아침 宮中三殿에서는 天皇陛下께옵서 御親拜下에 嚴肅한 明治節祭의 御儀를 行하옵시나다 午前九時四十分 宮內官[illegible] 三條掌典長以下 奉仕하야 御祭典을 行하는데 天皇陛下께옵서는 黃櫨染御袍의 御束帶를 입으시옵시고 午前十時 出御 御親拜하옵시어 御儀는 마치시게되는데 皇太子殿下께서는 午前十時半 赤坂東宮 假御所를 御出門、御參內하시고、또 皇族께서도 御拜承되며 近衛首相以下 文武百官은 參賀次로 參內할터이다 그리고 明治神宮例祭에는 入東掌典을 勅使로서 參向奉幣하실터이다

宮崎部隊 大畈市占領

【[illegible]二日發同盟】[illegible] 宮崎部隊는 [illegible] 水潟畔을 西進하야 二日午後通山東方五里大畈市를占領하엿다

江上을威壓한 明治節祝賀大閱艇式

【漢口二日發同盟】武漢三鎭攻略의 颯爽한 威容을 誇示코저 武漢陷落 海軍閱艇과 및閱兵式은 明治節의 十一月三日을 期하야 盛大히 擧行된다 同日은 午前八時四十五分 全海軍將兵이 嚴肅히 遙拜式을 行한即後 午正에 揚子江上에 無敵의 雄姿를 나타낸 艦의 溯江艦隊로부터 砲하는 明治節祝賀의 二十一發의 皇禮砲에 歷史的盛典은 幕을열터인데 空中에는 海의荒鷲들이 編隊로써飛來하야 祝賀飛行을行할터로 未曾有의 壯觀을 呈할터이다

國際聯盟諸機關과 協力을 一切中止
昨日事務總長에게通告

【東京電話同盟】國際聯盟理事會는 九月三十日 支那政府의 要請에 基하야 規約第十六條의 對日適用을 採擇하엿는데 帝國政府에서는 이것을 帝國에 對한 不當干涉이며 또 敵意엿든 策謀라고 認定하고 今後聯盟과의 關係를 一切斷絶하기로 決定한後 各種國內的手續을 進行中이던바 二日樞密院本會議에서 決定되여 御裁可를 得하엿스므로 同日附로써 天羽國際會議帝國事務局長으로부터 아브놀聯盟事務總長에게 對하야 右決定을 通告하엿다 此에 依하야 今後聯盟各種委員會中 委任統治委員會 阿片諮問委員會 社會問題諮問委員會로부터 帝國代表를 또 常設委任統治委員會 學藝協力委員會 阿片中央委員會 經濟委員會 保健委員會로부터는 個人的 資格에서 協力中인 邦人委員又는准委員을撤退시키고 更히 東洋傳染病情報局 [illegible] 常設國際司法裁判所와의 協力도 一切 終止하기로되엿다

聯盟諸機關의 協力終止에 關한 通告文

本官은 帝國政府의 訓令에 依하야 九月三十日 國際聯盟理事會가 聯盟規約 第十七條第三項에 基하야 第十六條의 規定을 帝國에 適用할수잇다는 報告를 採擇한結果 새로히 帝國과 國際聯盟과의 間에 發生된 事態에 鑑하야 帝國은 國際聯盟脫退後 繼續해오던 帝國의 聯盟諸機關에 對한 協力을 終止하기로 決定한 旨를 玆에 貴下에 通告하는 光榮을 가진다

外省河相情報部長談

右에 關하야 外務省情報部長及厚生省勞働局長은 二日如左히 談話를 發表하엿다

昨年 支那事變이 發生하야 九月十二日 支那側이 此를 聯盟에 提訴한以來 總會及 理事會는 帝國의 對支攻防을 九個國條約及 不戰條約違反이라고 認定하야 支那에 對한 精神的援助를 勸奬하고 또 我軍의 無防備都市空襲과 毒瓦斯使用을 云云하야 帝國을 誹謗하는 諸決議를 採擇하엿는데 今秋의 理事會는 更히 支那側의 要求를 드러 規約第十七條를 支那事變에 適用하야 드디어 九月三十日 同條三項에 依하야 規約第十六條所定의 制裁措置를 個別的으로 適用할수잇다는 報告를 採擇하게되엿다 最近聯盟活動을 보건대 그創立以來의 理想과 分離하야 小數列國의 道具로 化하고만것은 明瞭하고 또 今回自身의 無力을 暴露하고 帝國에 對하야 聯盟에 制裁條項의 適用을 敢行한 以來 [illegible] 帝國政府는 [illegible] 聯盟諸機關에 對한 協力을 終止하기로 決定하야 二日附로 聯盟事務總長에게 通告하엿다 [illegible] 昭和八年三月帝國이 聯盟脫退를 通告한 [illegible] 帝國은 [illegible] 國際事業에 對한 協力을 [illegible] 協力하기에 努力할것이다

岡崎、木村兩部隊 要衝小嶺을占領

【柏墩二日發同盟】咸寧으로부터 南進을 繼續中인 岡崎木村兩部隊는 二日日沒頃敵第二十二師가 死守하는 通山咸寧街道의 要點小嶺(咸寧東南方七十里)을 占領하고 다시 南方으로 殺到中이다

陳誠、何應欽等에 粵漢線死守嚴命
蔣、郴州서카英大使와會見乎

【東京電話同盟】皇軍의 武漢攻略에 依하야 그本據를 喪失한蔣介石은 皇軍의 進攻에 엽서 재빨리 飛行機로 某處에 逃亡한바 二日 某方面에 達한 情報에 依하면 蔣介石은 二日湖南省南部 粵漢線上의 郴州에서 自己의 無力을 反省함이 업시 陳誠을 粵漢線北部防衛司令 何應欽을同南部防衛司令에 任하야 無謀하게도 同鐵道를 死守하려고하는 模樣으로 何應欽은 이미 廣東省諸關에서 防備配置에 着手하엿다고 報道된다 또 蔣介石과의 會談을目的하고 佛英印度支那를 經由하야 支那奧地로 向한 카ー英國大使는 去月二十九日 昆明을出發하야 陸路湖南省에 向한바 三日 長沙에 到着할豫定으로 아마 郴州에서 蔣와會見할것으로 보인다(寫眞은 何應欽(上)과陳誠)

004046

蔣政權沒落反面 新中國基礎强化

【上海二日發同盟】蔣政權이 完全히 一地方政權으로 轉落하야 我蔣自身도 이제몸둘곳이업시 重慶에서 開會中인 國民參政會에 出席치 못하고 어디인지 몸을 避하는 苦境에 沈淪하게되엿다 此와反對로 北京臨時政府 南京維新政府及蒙疆自治政府는 成立後 僅僅一年도못되여 掃共滅黨、中國更生、日支親善의 大使命達成에邁進 民衆의 渴望支持에 依하야 新中國建設의 基礎를 堅固히하야 着着 治績을 나타내고잇다 蔣政權이 一地方政權에 轉落하야 共產黨의 傀儡가된今日 一日이라도速히 此를打倒하야 反共救國中國의 統一政權을 樹立하라는 民衆의 希望은 날로熾烈하게되여 統一政權樹立의 空氣는 膨湃히 漲溢하야 方今南京에 開會中인 臨時、維新兩政府聯合委員會는 이國民的要望에 基하야 反共救國統一政權樹立促進의 根本方針을決定하게되엿다 그리고 廣東武漢三鎭에서도 占領한지얼마안되여 벌써治安維持會가 設立되려하고 治安維持와 復興建設에努力하고잇는바 一步進하야 此等兩地方에 新政府를樹立하라는 空氣가 醞釀되여 近近設立될形勢에 이르럿다 이政府가實現되면 臨時、維新、蒙疆의 各既成政府와相互聯携하야 統一中央政權의 樹立促進에 邁進하는것이다 일직蔣政權에 操縱되엿던支那民衆도 漸次抗日의 迷夢에서 覺醒하야 國府의 呼號하는 抗日長期抗戰도 一片의 空念佛에 終할것으로 南京의 兩政權聯合委員會의 成果와 占領地域內의 政治的 動向은 자못注目된다

武漢行營前에서 萬歲를高唱하는 皇軍部隊(上)와 德安城을占領한 ○○部隊

大別山進擊部隊 漢口郊外에到達

【漢口郊外에서 二日同盟特派員發】大別山을 突破하고 進擊殲滅戰을 繼續하야 三十日 宋埠를出發한 ○○部隊는 由店、新洲、倉子埠、黃陂等을 經由하야 二日 漢口郊外에 達하엿다 이 街道는 李品仙麾下의 廣西軍及 四川軍及 北部大別線防備에 當한、孫連仲軍의 唯一한潰走路로서 此等敵은 大別山의 嶮을 突破하고 友軍部隊의 先頭에서서 武漢平野에進出한 倉林部隊와 長江北岸을 進擊한 ○○部隊에게 挾擊되며 路上에는 敵遺棄死體 遺棄彈藥 車輛等이 길이狹窄하도록 散亂되여잇서 我神速果敢한 急進擊에 敵이 混亂한狀態를 如實히 말하여준다 宋埠는 人口三萬의 繁城에 다음가는 白頭河畔의古都로 城內는 我荒鷲의 徹底的爆擊에依하야 慘憺한死街로化하고 城外路上에는 我倉林部隊에 依하야 退路를 遮斷當해 一擊殲滅된敵人馬의 遺棄死體數百이 진흙에半이나 埋沒되어 目不忍見의慘狀을 呈하고잇다 皇軍은 二十七日宋埠附近의敵을 擊滅하고이어 南方二十里의 岐亭을占領한바 岐亭은 敵의大別山防備總司令部의 本據를두엇던곳으로 支那軍의暴狀에 苦惱를當하던 住民의爆竹을울니며 我軍을歡迎하고 城內潛伏하고잇던 敗殘兵約六十名의 隱身場所에 我軍을誘導하엿다 山店附近은 倉林部隊와 江北進擊部隊와의 挾擊地帶로 敵의遺棄死體는 累累히路上의兩側에 散在하고 多數의軍用自動車 彈藥車等이 遺棄되어잇서 敵의狼狽狀態가 分明히察知되엿다 新洲附近에는 軍用自動車四臺가 轉覆하야잇고 車中에는 各十數名의敵兵의 死體가잇섯다 漢口에接近함에따라 路上의敵 遺棄死體는 益益增加할뿐이엿다 倉子埠及 그西方六指店附近에는 敵의 野戰病院이잇고 擔架醫療器材의 遺棄品이 夥多하엿스며 黃陂城外廣場에는 敵의鹵獲品이 山積되여잇다 路傍의敵遺棄死體는 道路標識와가티 漢口郊外에까지連續하고 그 間의敵遺棄死體는數千에達하엿다

反共救國旗幟下 中央統一政權樹立
中國聯合委員會宣言要旨

【南京二日發同盟】中國新政府의 樹立을 明示할北京 南京兩政府聯合委員會의 第二回宣言案文은 二日午前會議에서 一部字句를 修正한다음 全會一致로써 可決되야 三日의宣言式을 經하야 正式으로 發表되게되엿다 右宣言案의骨子는

一、廣東武漢地方의 陷落에依하야 各地에 反蔣運動이 擴大하고 反共救國의 民衆運動이 勃起하고잇는事實

二、維新、臨時兩政府는 蔣政權의 頑迷한 容共抗日政策의 犧牲이되여 戰禍를입게된 各地의救濟及交通에 努力함과同時에 反共救國中日提携의 根本方針下에 新支那建設에 邁進할事

三、右의目的을 達成하기爲하야 方今全國民衆의 强力한 中央統一政權樹立要望에 寄하야 維新臨時兩政府는 速히 그準備를 進行함과 同時에 다음의 第三回聯合委員會에서 强力統一政府의 設立을 希望할것

夕刊後市況 (二日)

◆各地 期米 後止◆

	當限	中限	先限
大邱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群山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木浦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下關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名古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各地 商品 後引◆

	當限	先限
大阪棉花	[illegible]	[illegible]
大阪人絹	[illegible]	[illegible]
東京人絹	[illegible]	[illegible]
福井人絹	[illegible]	[illegible]
橫濱生系	[illegible]	[illegible]

恩給金庫京城出張所 支店으로昇格

【東京電話同盟】恩給金庫에서는 來四日午前十一時 東京會館에서 評議委員會를開催하고 業務擴張에伴하야 京城、大連、臺北各出張所를 支店으로 昇格시키기로 되엿다

本社參觀

▲利原群仙小學校兒童六五名(金才鎔氏引率)

人事·集會

▲中村朝鮮軍司令官 三十日부터 平壤方面管下巡視中이든바 二日午後三時五十分(一時間延着) 京城着歸任
▲水田財務局長 豫算案携行코 三日 午後三時十分 京城發渡東

密敎"性道敎" 白日下에 暴露

荒唐無稽한 "地陷說" 功名云云、膏血搾取

本據地는公州、被害信徒는一萬名

敎主等敎幹部警察에被檢

부천씨, 백백교를비롯해서 터문이업는 미신을내걸고 우매한 민중의 고혈을빨던는 소위 사교(邪敎)의발호가 끈칠사이업서 조선은 실로 언제나 이따위사교의피해로부터 해방이될것인가가 의심되리만치 이미숙문히 이종류의피해에 시달려 왓건만이제다시 피해자 일만명이다는놀다운파기록을 떠메고나선 새로운 사교하나가잇서 사직의 준엄한취조에따러 그죄상이 여지업시 백일하에 속속폭로되고잇다 문제의사교는 본거를충남공주(公州)에다가 두고 주교직일(宗敎)적인조직에의하야 포교진을버려 신도 일만여 명을가지고 잇는유사종교 성도교(性道敎)로서 우매한 농민을 속여금후오년이내에 땅전체가 바다속에 꺼저드러갈터인데 이때에는 성도교신자만이 구원을어들뿐외라 평소에교에바친금품기라의지성여하에 따라서 신도는 각각고위고관에올러 부귀를 마음컷누릴것이라는등 터문이 업는소리로써 신도로부터 금품을 사취하는한편 이것이 힘에차지못한 신도에게는 때과안해를 대시바치도록 한일조차 한두번이아니여서 며(해)를두고 가진악덕을 싸허오것이다는데 우연한기회로 교의비밀이 동교의 신도로서 터문이업는 거짓말에속아넘어 가산을 탕진한 피해자의한사람인 부내마장정(馬場町) 김일한(金一漢)(假名)(六七)이가 시내동대문서에 검거된것을 단서로 이래 경찰의 활동을 보게된 것이라는데 동서에서는 사건을 중대시하고 곳 이것을본거지 공주서와 협력, 교간부의검거에 착수한것이라는데 그간 공주서의 활동으로 전교수 이미제(李民濟)이용주(李龍柱)등중요간부 다수가 공주서에 자폇다한다 교도가 호휘일만명이니만지 사건은 이제겨우그 첫고비를 드디여잇을 정도에지나지안허 앞을까지에는 상당한시일을요할것이라한다

明治佳節을期하야 消防功勞者表彰

警務局長談話發表

금일명치절(明治節)가절을태하야 총독부경무국에서는 공로경찰관양명과 공로소방조원오십륙명을 다음과가티 표창하기로 되엇는데 이에대하야 삼교경무국장(三橋警務局長)은 다음과가티말한다

오늘 의의기픈 명치절(明治節)가절을태하야 공로경찰관인 전라북도(全北)순사강제영(姜齊永)경기도박해판(朴海觀)양군을비롯하야 경상북도안동(慶北安東)소방조부조두 권태연(權台淵)군외 오십오군에대하야 최고명예인 공로기장(功勞記章)(경찰관) 공로장(功勞章)(소방조원)을 각각수여하게 된것은 우리조선을위하야 실로 경하할일이다 이영예를밧는전라북도순사 강제영군은 오래동안 사회에 해독을주든사교보천교(普天敎)를 취체하기 이십여년동안 가진박해와 물질적유혹을배제하며 신명의위험도불고하고 그취체의철저를 기하야 마침내그교를 해산케하얏고 또경기도순사 박해판(朴海觀)군은 금년구월 이십륙일오전두시반경 부내신공덕정(新孔德町)을순행중 범인을 발견하고 이것을체포할때 격투중 머리에비사의 중상을입고도 격투를계속하기 한시간에밋처서 다량의출혈과 격투의피로로인하야 면번이나혼도 상태에 빠젓슴에도 불구하고 용맹스럽게 체포하야 양군이 모두 직무에 [illegible] 야 경찰관의 본분을 다한것은 실로일반경찰관의 구감이되고도 나을이잇다 그리고 또 소방조원도 소방본래의 사명인 수화경방(警防)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야 이날 이와가티 표창하게된것은 이 또한 실로경하하야 마지안는 바이다

表彰者氏名

一、警察官功勞記章下附

京城龍山[illegible] 朴[illegible]
全北井邑[illegible] 姜[illegible]永

二、消防組[illegible]功勞章[illegible]

馬山消防組[illegible] 山崎忠一
江陵消防組[illegible] 波多理[illegible]
仁川消防組小頭 板橋初一
牧山消防組[illegible] [illegible]宇三郎
順天消防組[illegible] 久米竹七
慶北安東消防組[illegible] [illegible]
咸興消防組[illegible] 砂野茂次郎
[illegible]山消防組組頭 今野[illegible]一
忠北[illegible]川消防組小頭 金在[illegible]
全北茂朱消防組消防手 金[illegible]
全南麗水消防組組頭 今川五百[illegible]
慶南方魚津消防組小頭 [illegible]
元山消防組消防手 香川竹一
[illegible] [illegible]

三、[illegible]

忠南牙山消防組[illegible] 田代壬夫
慶北安東消防組[illegible] 林田[illegible]男
忠南[illegible]安消防組[illegible] [illegible]佐右衛門
全北合[illegible]消防組[illegible] 名部岩[illegible]
慶南宜寧消防組[illegible] [illegible]吉牧治
慶南陝川消防組[illegible] 黃[illegible]九
咸南水興消防組[illegible] 野村金吾
新義州消防組[illegible] 岡本 茂

四、[illegible]受賞者

忠北[illegible]消防組[illegible] 山上竹三郎
慶南金海消防組[illegible] 高瀨久[illegible]
平北[illegible]消防組[illegible] 市原[illegible]一
江原[illegible]川消防組[illegible] [illegible]
忠南[illegible]川消防組[illegible] 竹中[illegible]市

五、[illegible]受賞者

京畿[illegible]消防組[illegible] 田中宗吉
全南[illegible]消防組[illegible] 青木岩吉
平南[illegible]消防組[illegible] [illegible]一次
平北[illegible]山消防組[illegible] 三木幸三郎
江原北[illegible]消防組[illegible] [illegible]
忠北[illegible]消防組[illegible] 小川健太郎
忠南[illegible]山消防組[illegible] 李根實
〃大田消防組小頭 住田勘市
全北[illegible]消防組[illegible] 片桐和三
〃西倉消防組[illegible] 坂田米三
〃高興消防組[illegible] 西[illegible]三郎
〃長城消防組[illegible] 北原[illegible]一
〃寶城消防組[illegible] 田中[illegible]
慶北興海消防組[illegible] 中村[illegible]吉
〃善山消防組[illegible] 石島[illegible]
〃道[illegible]消防組[illegible] 井上 寬
〃咸昌消防組小頭 中島太一
〃大邱消防組消防手 田尻德次郎
慶南[illegible]川消防組[illegible] 中島佐武
〃彥陽消防組[illegible] 國本久吉
〃金海消防組小頭 門谷半三郎
黃海[illegible]消防組[illegible] 松井榮治
黃海[illegible]消防組小頭 朴昌禹
〃栗里消防組小頭 金永球
平南新倉消防組[illegible] 車良[illegible]
江原[illegible]消防組[illegible] 李學淳
〃[illegible]城消防組[illegible] 黃富淵
〃酒泉消防組[illegible] 尹泰年
咸南元山消防組小頭 金泰淵
咸北會寧消防組[illegible] 岩松[illegible]
〃淸津消防組小頭 橋脇晉五郎

汽動車에側面衝突 京春뻐쓰大破

乘客無事 運轉手等重傷

【京南支局電話】이일오전아홉시경 천안(天安)서 장호원(長湖院)을향하야 진행하고잇든 경남(京南)철도회사 기동차가 안성군이죽면매산리(安城一竹面梅山里)압 교차점에 이르렀을때 경성에서 여수로가던 경춘철도(京春鐵道)뻐스경기사백십사호자동차와 직면으로 충돌되여 자동차는 악살바삽부서저 버리고 기동차는 측면이조곰 상하얏든데 다행히 양편에모다 승객이업슴으로 자동차운전수 김정환(金正煥)과 차장이 중상을 당하엿슬뿐이다 부상된 차장과운전수는 뚝섬의원에서 치료중이나 생명이위독하다 원인은 목하 조사중이나 사고난교차점에는 신호가업슬뿐아니라아침안개가기퍼서아플분간하기어려웟든까닭이라고한다

乞人部隊가加勢 傷害致死犯을搜査

西署管內에"言爭殺人"事件

삼십일일밤 부내중림정(中林町)칠십칠번지이호 김명규(金明奎)의집에서 그집에묵고잇는 황수복(黃壽福)(二一)이라는 청년이 역시 동거인으로 별명이 최가(崔哥)(五七)라는사람과 사소한말다툼을하든나머지 황이돌연 최가를때리기시작하다가 나중에는 돌도물고나와 내동댕이를친다음 발로짓니겨 빈사상태가되자 황은곳 적을 감추고말엇다

그런데 황에게 어더마즌최가는 하로동안 신음하다가 일일밤에 절명하고말엇다는데 소관서대문서에서는 사건을 극비에부치고 이일아츰부터 대활동을개시하엿다

그런데 이가튼참사를 이르킨 김명규의집은 걸인십오륙명을숙박시키며 이들로하여금 [illegible] 수집시켜 고물상을경영하는모양인데 이일오후부터는 서대문서수사대를 옹원하려고 주인김명규가 범인의얼굴을 잘아는 십수명걸인부대를 인솔하고 부내각처로 황의행방을 찻는중이다 또한 황이최가를 죽인원인은 황수복이가 동료들과 화투놀하다가 여페잇든 노인에게 욕설을퍼부음으로 최가가 나무람을하엿드니 돌연달겨드러 때리기시작한것이라고 말한다

交通慘禍二件

로인과 어린이들을 위협하는

서울거리ー이일 오후네시반쯤에 부내신당정(新堂町)칠십륙번지사는 구두고치는사람 리성진(李成鎭)(三七)이는 오간수 다리의 전차길목을 건느다가 경성전기회사전차운전수 김길환(金吉煥)(三一)이 운전하여가든 전차에바치여서 갈비대한개가 부러지고 머리가 상하엿는데 방금려지정 창경의원에서 치료중이나 생명이 위태하다한다

또 이날오후 두시십분에는부내돈암정(敦岩町)사백오십팔번지의 사십칠홀에 사는박길헌(朴吉憲)씨의 손녀 롱분(龍分)(三)이라는아이가 그집아페서 놀다가 경성전기회사뻐스운전수 조태연(趙泰衍)(二七)이 운전하여가든 뻐스에 정면으로 바치여서 외편갈비뼈 다섯개가부러지고머리가 찌저젓는데 대학병원에서 치료중이나 역시생명이위중하다한다

술낌에暴行

종로오정목사백구번지 전공(電工)유한근(柳漢根)(二二)이는 일일오후일곱시반쯤해서 종로오정목 세일(世一)주점에서 술을십전어치를 마시고 술김에 여급보고 히롱끄테 폭행을 가하여 동대문서에 붓들려가서 유치장에서 밤을새웟다

圖書館週間에 鐵道局도參加

오는칠일부터 일주일동안 국민정신작흥 「도서관주간」을전국적으로 개최하야 독서선전과국민정신작흥을 철저히 하기로되엿스므로 철도도서관에서도 이에따라 다음과가튼 취급을하기로되엿다

▲칠일부터 일주일동안 관내열람료를 밧지안는다

▲주간중에 철도국원및 대우열람권을 가진사람에게는 서고(書庫)를 공개한다

▲주간중에 철도국원과 대우열람권및 특별대출(貸出)열람권을가진사람과 연선재주 철도국원의관외 대출지망에 대하야는 따로대출도서 열람료를 밧지안코소정한 기간중에 소정한책수를빌려준다

漢藥種商界大念願 唐材輸入許可陳情

事變以後年四百萬圓의貿易、極度로萎縮

大邱藥令組合幹部上京猛運動

조선의한약(漢藥)집산으로 유명한 대구약령(大邱藥令)이 당재(唐材)결핍으로 말미아마 열지를못하게 되엿스니 당재수입을 허가해달라는 진정단이상경하야 이일오전 총독부위생과에 진정서를 제출하엿다

대구약령은 지금으로부터 삼백여년전에 시작되여 조선안에서 생산되는 한약원료와 지나(支那) 인도(印度) 섬라(暹羅)등지에서 드려오는 소위당재(唐材)를 집산하야 오고잇섯는데거금삼십년전에 이것의 합리적통제를 목표로 대구부내에 흐터저잇든 한약종상(藥種商)이 대구한약업조합(漢藥業組合)을조직하야공급과 수용의 원활을도모하야서 매년판매고 사백만원을 돌파하고 잇섯는데 일지사변이 일어나자 법률적으로 강제의수입이불능에 빠지고말엇다 그리하야 금년일월부터 열린약령은 종래판매고의 반에에 불과하며 한약종상의 당재결핍으로 재약을하지못하게된 형편이므로일반 민중보건에 끼치는 영향이지대하며 남조선경제계의 타격이나아가서는 전조선약종상 전체의생활에일대 위협을밧게 되엿스므로대구 한약업조합원 일백십구명의 연서로 당재수입을 허락해달라고 조합장최한주(崔瀚周)와 부조합장 최해종(崔海鍾)외 사씨의대표자가 이일총독부 위생과장을방문 진정서를 내엿는데 위생과장도 여기대하야 고려하것다는 회답을하엿스므로 귀추가주목된다

近衛首相"마이크"로 政府의態度闡明

今日明治節全國中繼

한구(漢口)함락에따라 제국의장기전(長期戰)은 더욱본격화하게되여 정부와국민은 일체가되여 전쟁목적달성에 배전분발 하여야만할이때 정부로서는 금삼일의명치절(明治節)을당하야 내외에중대성명을 발표하므로써 정부의 태도를 천명하는일방 오전구시십분에는 근위수상(近衛首相)이 동경방송국으로부터 금후국민의각오할바에 대하야 방송하기로되엿다 이방송은 물론전국각방송국에서 모다중게키로하야 수상이직접국민에 말을전하게되엿다 조선에서도 물론 경성방송국을 중하야 중게케되엿는데 맑게개인가을아츰하늘놉흔곳 바다를건너올 수상의연설에는 이시국을 한층더깁게인식할로깁흔말이 잇슬것으로 누구나들어야만 할것이라는 기대가크다

納稅功勞者도 六十八名表彰

경성세무감독국에서는 삼일명치절의 조흔날을 택하야 관하납세공노자 읍면장 삼십삼명,구장, 농촌진흥회급납세단체간부삼십오명을표창하기로되여 각관계세무서장으로 하야금 표창장과상품전달식을 거행케하엿다

軍援慰問團

瀋陽을爲始活動開始

조선군사후원련맹에서는 한구함락을기회로 북지○○부대와미고(彌高)부대장병의문단을 각종으로 삼일총출발은양(瀋陽)으로차저가서 그곳부군병원 분원에서 백의의용사를 위문하고차일은 동사무군대원을 위문하고오후당일은 경성국장에서 경성에잇는 부대의장병을 초대하야 위문 흥행을하고 칠일에는두반으로나누어서 북지와 북조선으로갈터이라한다 그리고 북지위문단은 재단을하는 사람등으로 일행여덟명이라한다

龍頭町에小火

이일오후 다섯시이십분에 부내룡두정(龍頭町)일백사십이번지 손자영(孫知水)정미소 소오양간에서 불이나서 전부태워버렷다 손해는오십가량이며 원인은 아이들이불작난을하다가 낸것이라한다

北新峴에初氷

【北新峴】북신현지방에는 벌써부터 기온이강하하야 영하사,오도를 오르나리고잇스며 지난삼십일에는 어름이 두푼두께나되게어러 추위가심함으로 일반농민들은 겨울에 살준비를하노라고 분망중이다

精銳三十八名이 比島派遣豫選에出場

拳鬪選手權大會는明夜

全朝鮮拳鬪聯盟主催와 朝鮮體育協會 本社後援의第五回 全朝鮮拳鬪選手權大會는 比島派遣朝鮮豫選을兼하야 明四日午後七時부터 本社大講堂에서擧行될터인데 이에응모한選手는 지난神宮大會의覇者를비롯하야 斯界에서 추리고추려신 三十八名으로 自信滿滿한 精銳들만이다 出場選手는 今三日正午부터水標町東洋拳鬪會에서 體重을다르기로되엿다

▲플라이級=李啓烈(靑拳) 韓一男(靑拳)宋基東(靑拳)方順成(靑拳)李福成(朝拳)金仁奎(東拳)梁啓模(東拳)[illegible]根洙(東拳)姜快石(朝拳)李碩基(無)韓聖奎(無)金昌煥(無)崔南山(無)

▲밴탐級=金明錫(朝拳)鄭義善(東拳)金周鉉(無)徐相烈(靑拳)李敬鮮(靑拳)

▲페더ー級=韓龍河(東拳)金炳鎬(東拳)金鐵(東拳) 李龍圭(東拳)朴敬善(靑拳)高大云(無)金石成(無)

▲라이트級=鮮于君(金煥)金明福(靑拳)成漢慶(朝拳)

▲웰터ー級=朴順源(元山) 李敎勳(靑拳)朴壽天(靑拳) 崔昌烈(東拳)朴順喆(東拳)

▲미들級=金永福(朝拳)崔泳學(靑拳)張錫興(東拳)張大賢(無)

全朝鮮綜合蹴球

老童들의蹴球戰壯觀

咸興은水原을16對0으로이겨

今日、中等部第二回戰

朝鮮蹴球協會主催의 第十九回全朝鮮綜合蹴球選手權大會第一日은 二日正午부터 京城運動場에서열리엇는바 昨報以後의 戰績은다음과가트며 이날 一般部第一回戰에는 咸興과 水原이對戰하야 實力의差는 어찌할수업서 近來에드믄 十六對零이란 엄청난스코어로 咸興이大勝하엿스며 이날興味를 이끄른 老童들의 紅白戰은 지난날의 蹴界들이 多數參加하야 大接戰을 演하더니 兩軍모두 得點업시마치엇다 이리하야 今三日에는 午前九時半부터 中等部第二回戰이 展開될터인데 일즉이 中等蹴球界에서 勇名을 떨치든 遼來의 裡里農林과 中央의對戰이 볼만할것이다

(寫眞은紅白戰의一景)

◇一般部(第一回戰)

咸興16 水原0 (前7…0、後9…0)

咸興蹴球團對水原蹴球團戰은 午後三時四十分부터 片茂英(主審) 尹龍職、金永麟(線審)三氏審判下에 咸興키ㄱ오프로 開始된바 前半十分까지 咸興은 『코너킥』四個를 어더 한때는 『골인』의機會가 濃厚하엿스나 水原FB、HB의 密集防禦로 뜻을 이루지못하더니 十四分RH李芳林의 『헤딩』으로 幸先의 一點을先得한後 十五分에 水原軍『코너킥』을 利하엿스나 無爲되고 十六分에는 咸興LI車淳玉의 『크린숏』으로 一點을 加하야 二對零으로 咸興『리ー드』 二十分 또다시 車숏으로 三對零 二十一分에 金喜守의숏으로 四對零 二十四分 또 金의숏으로 五對零으로 咸興軍大得點하야 前半을勝한後 三十分과三十一分에 二點을追加하고 後半에드러가 三分에 올마치고 咸興『페널킥』으로 一點을加하야 八對零 其後十二分、OF金仁燮의숏으로 九對零、十五分에도 RI車淳玉의숏으로 十對零、十九分LI金月龍숏으로 十一對零 二十三分에 十二對零、二十九分에 十三對零된後 連續得點하야 結局十六對零의 一方的게임으로 咸興軍이 大勝하얏다 (게임七十分間)

【咸興蹴球團】 GK FB HB FW [illegible]

【水原蹴球團】 GK FB HB FW [illegible]

白軍0 紅軍0 (前0—0 後0—0)

三十歲以上으로부터 六十歲以內의 老童들의 紅白戰을 同午後五時부터 金福卿(主) 鄭熙昌(線)氏審判下에 白軍키ㄱ업으로開始하야 結局兩軍得點업서 無勝負로마치엇다 (게임三十分間)

【中東東學校】 [illegible]

【白軍】 GK FB HB FW [illegible]

【紅軍】 GK FB HB FW [illegible]

門鐵柔道軍來征

門司鐵道部柔道部員 [illegible]以下九名은 二日午前七時五十二分 京城驛着 來征 三日午前十一時부터 鐵道局과對抗戰하게되엿다

총딱

○실타는 백만원을 어서바다가리고 법정에서 옥신각신

○사양은 예지단(禮之端)이라지만 소송하는품이 아마 욕지단(慾之端)인모양

○말썽은 철도국원 남실남실집어쓴 공금(公金)이 사천원…

○이친구 [illegible] 집어썻ー번 얼마나 쓸번햇누

○남편의 죽엄신수를 때려고기도사기한 여인이잇다

○소긴사람 나부댄들 무엇하리 처처 속아지는 판인데……

今日天氣

晴後曇

曆

▲十一月三日(木曜)陰九月十二日 ▲干支己亥 ▲日出午前六時五十九分 ▲日南中午後零時十七分 ▲日入午後五時二十五分 ▲晝間十時三十五分 ▲月出午後二時四十四分 ▲月入午前一時五十六分 ▲滿潮(仁川)午前零時二十分 午後一時十分

今日의運動

▲蹴球=朝鮮蹴球協會主催 第十九回 全朝鮮綜合蹴球選手權大會 第二日 中等部第二回戰電機對中東(午前九時半)外語對協實(午前十一時) 裡農對中央(午後零時半) 養正對商工(午後二時)◇ 一般部第一回戰京城쓰카ー對專賣局 (午後三時半)以上全部 京城運動場 (觀覽料=一般二十錢 學生十錢)

▲籠球=朝鮮學生籠球聯盟主催第二回秋期聯盟戰第一日普專對法專(午後二時半) 延專對大學(午後二時二十分)以上 淸原里大學體育室(觀覽無料)

▲럭비=第十四回全日本高專럭비選手權大會 朝鮮豫選 리ー그第七日…高商對高農(午後二時) 龍山鐵道球場(觀覽無料)

▲庭球=朝鮮軟式庭球聯盟主催役員(理事)庭球大會 午後一時朝鮮銀行코ー트(觀覽無料)

▲柔道=朝鮮對門鐵柔道對抗戰 午前十一時半 龍山鐵道養成所道場(觀覽無料)

▲劍道=第十回京城帝大對九州帝大劍道對抗戰 正午 光化門通警察官講習所(觀覽無料)

普成、醫專棄權으로 綜合蹴球日程變更

朝鮮蹴球協會主催 第十九回全鮮綜合蹴球選手權大會 第二日 [illegible] (二回戰)에는 普成이、四日에行 [illegible] 京城醫專蹴球部는 [illegible] 모두 棄權하엿스므로 同大會의 日程은 다음과가티變更되엿다

◇中等部

▲三日午前九時半 A、中東學校對徽文學校 B、外語對協實(午前十一時) C、裡里農林對中央中學(零時半) D、養正中學對京城商工(午後二時) (以上第二回戰)

▲四日午前十一時 E、徽新學校對B의勝者 F、培材對東萊(午後一時) G、D의勝者對C의勝者(午後二時半) (以上準準決勝)

▲五日午後零時半 H、A의勝者對E의勝者 I、F勝者對G勝者(午後二時半)

▲六日午後二時決勝戰

◇專門部

▲五日午後三時半…延專對普專決勝戰

◇一般部

▲三日午後三時半(準決勝) A、京城쓰카ー對專賣局

▲四日午後四時…咸興蹴球團對A의勝者와의決勝戰

中等卒業班對在學生 送別庭球戰

來十三日擧行

明春三月에 卒業할 市內中等學校庭球選手와 在學生과의 送別庭球戰은 來十三日正午부터 太平通京城府廳코ー트에서 擧行하게되엿는데 兩軍의 『멤버ー』는 다음과갓다한다

【卒業生】 金成學(養正) 申東一(中東) 朴寅夏(善隣) 朴英洙(善隣) 李[illegible](景中) 金[illegible](景中) 尹光欽(徽文) 金鍾斗(徽文) 孔[illegible](培材) [illegible](普成)

【在學生】 吉田(龍中) 妹尾(龍中) 金鼎洙(培材) 田浴鎬(培材) 金在[illegible](養正) 張[illegible]元(養正) [illegible](培材) 任勝宰(徽文) 孫永斗(徽文) 朴永哲(普成) 崔熙達(普成)

류마치스와 神經痛이根治된다

아픈것이速히낫는데놀란다

神經痛류마치스로 手足의매디매디와筋肉、頸面、肩腕、肋間、坐骨等이아프던지 부어서困難한분이면 [illegible] 永年의慢性과惡性이 [illegible] 한家傳藥이 [illegible] 富[illegible]에잇습니다. 이名藥은內服藥으로一兩日에 [illegible] 이조금藥하야 [illegible]

合後는가신듯이아픈것이 업서지고 [illegible] 도藥希望者에게는實費로보내드립니다. 代金引替로도보내드립니다. 三十日分一圓五十錢 十五日分一圓五十錢 [illegible]

東京市本鄕區[illegible] 豊山院頒藥所 振替東京四九五四番

廣告

奉仕界의巨彈·七萬圓의大奉仕

朝鮮初有의 大壯擧!

家庭救急常備藥十二種式(定價六圓) 一萬箱無料進呈

●本社는 非常時國民健康을爲하야 以藥報國의 犧牲的大奉仕로 總額七萬圓의 家庭救急常備藥一萬箱을 提供하야 全鮮 百補丸愛用人士 一萬人께 無料進呈하기로 하엿슴니다

●이것은實로 朝鮮藥業界有史以來 前無後無의 驚異的大奉仕인同時에 平和堂이아니고는 하지못할大壯擧임니다

●只今百補丸을 服用하면 藥効도잘날뿐아니라 家庭保健에絶對必要한 救急常備藥十二種式(定價六圓)은 거저엇게되오니

●勿失好機하시고 只今곳 百補丸을 服用하시기 바람니다

無料進呈하는 家庭救急常備名藥

一、(疲勞回復 氣血不足補劑) 正氣還補散
二、(吐瀉急救 救急靈藥) 唐壽香蘇合丸
三、(健胃消補) 蔘茸靈神丸
四、(학질약) 金鷄納
五、(무좀 스피렌 피부약) 皮膚萬能水
六、(다친데 상처약) 沃度丁幾
七、(회충신약) 회충산
八、(두통약) 健腦神
九、(담기침약) 祛痰鎭咳藥
十、(해열진통) 感氣藥
十一、同 同 錠劑甲
十二、同 同 乙

合十二種福箱入 定價六圓也 京畿道警察部許可濟品

進呈方法

●家庭常備藥十二種保健箱(定價六圓分)은 百補丸一劑注文마다 同時에 同包進呈합니다

●婦人百補丸、少年百補丸、其他十全·六八味丸等 本社特製丸藥으로 十圓以上注文人께도進呈합니다

●注文書에는 必히 『家庭藥十二種付注文』이라고 欄外에記入하여야됨니다

百補丸

조경 포태 婦人百補丸

天下에百補丸以上 조흔補藥이 업슴니다

●食事나陽氣나筋力에나 長壽에나 무엇에나 世界어느나라藥보다도 百補丸이 越等이 効力이優勝함니다

男女老少를勿論하고

▲元氣가不足한분 陽氣가衰弱하는분
▲胃腸이弱하고 口味와食慾이업고 飮食消化가안되는분
▲神經이衰弱하고 記憶力이減退되는분과 肺가弱하고 貧血症이잇는분
▲手足과 下초가冷하고 肢節腰痛이잇는분
▲過飮過色人、咳嗽가잇는분、活氣가업고 여위고 早老하는분은 即時 百補丸을쓰시요 全身五臟六腑를 다完補합니다

藥價 百補丸 一劑 十圓 / 婦人百補丸 一劑 七圓 / 少年百補丸 一劑 五圓

無料進呈 어느藥이나三劑以上 共同注文하시면 旅人께一劑無料進呈

京城堅志町五一

平和堂株式會社藥品部

電光六三一番·六二三番·三三〇番 振替五番

中部版

共販制實施의影響
正租一叺에約十三錢損
細農과小商人層에損害多大

【仁川】 금년부터 생산자를 옹호한다는 간판아래 관생한 공동판매조합이 각기면내의 곡식을관외(管外)로 보내지안코 강압적으로 공판에부치어 매매를 하는관계로 소작농(小作農)기타 세농(細農)층의 폐해가 적지안흔한편으로 도회지의 상인은전혀 불황상태에 빠저잇다 함은이미 보도가 보도하엿거니와이 조한"가마니"에 십사전사리의 재산지의시세와 도회지의 시세를 대조하여보면 산지에서는정 비용을 요하게되고 인천에서는 십구전오리의 비용을 요하게됨으로 결국인천으로와서 파는것이 오전일리의 손해를보게된다 그러나매매되는 시세로보아서는 인천에서 매매하는것이가 한『마니』에 십이삼전내지사오전의이익을 보게된다고한다 지난시월 이십구일 김포(金浦)군 대곳면(大串面)공판에서 매매된 곡량도(穀良都)시세는 한근에 구전오리 인천객주조합(客主組合)에서 매매된 시세는 곡량도한근에 구전칠리이엇슴으로 결국인천지세가 이리나비차며 딸아서 정조구십근 한『가마니』에 십팔전이놉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공판구속을바더 산지에서매매를 하기때문에농민의 손해가 불소하다하며 전기김포와 인천에서 매매되는 일전비용과 시세를 대조하여보면 좌기와갓다

·十月二十九日金浦郡大串面
穀良都 一斤 九錢五厘
價格一叺八圓五十五錢內
檢査料一叺 三錢
斡旋料一叺 三錢
仁川까지의船賃一叺 六錢
其他費一叺 二錢四厘
合計一叺 十四錢四厘
差引一叺代金八圓四十錢六厘

·十月二十九日仁川正米市場
穀良都 一斤 九錢七厘
價格一叺 八圓七十三錢
檢査料一叺 四錢
手數料一叺 五錢
下陸賃金一叺 三錢五厘
斤地稅一叺 一錢
自金浦至仁川船賃 六錢
合計一叺 十九錢五厘
差引一叺代金八圓五十三錢五厘
右金浦仁川一叺差異十二錢九厘

이상과가티 지난달이십구일김포지세만을대조하면 인천에서매매된것이 십이전구리바게놉지아니하니 기타지방도 대체인천보다엄해서 생산자의 피해가막대하다고한다

鬼倉氏의講演 永登浦서盛況

【永登浦】 제국연하의 비상시국에 감하야 황도정신의 선포국체명증의 철저와시국인식의 강화를위하야 영등포교회구회위원장외 칠개사회단체장의 발기로 국민정신총동원 ... 회의중요회(松岡會)회장 ... 군주영(原田日本會主議)오민정신총동원연맹본부 특별연구위원 국제성동연합회 상담역으로지에 잇는 실도사계의 추진 권장 귀창(鬼倉)선생의내선불기회로 경성부 영등포춘장소강당에서 시국강연회를 개최하엿는바 편민다수 착진하우에 씨의 독특한열변으로 일본제국의 비상시인소이와 국체명증의 동양평화의 진의(眞意)의세국의 장내에편만하야 청중을 감격시켯다

安養驛서도獻金 驛舍新築剩餘金으로

【永登浦】 선반경부선 안양역사(安養驛舍)신축낙성식 축하회거행은 기보한바어니와 동축하회당일에 여러방면에서들어온 기부금이 다여예답하야 거화당초에 예기치못한 잉여금(剩餘金)이 생기엿슴으로 다시 축하회발기인들은 협의하야 금번한구한팔을 기념하에 도한 황군에대한 감사의일단을 표하는의미에서 발기인은중백러 소액의기부를 주가한 일백원을 국방헌금에 바치기로해서 조선군애국부에 헌납하엿다

阿片密賣現行犯 支那人夫妻逮捕

【仁川】 아편밀매중의 부처를인천서에서체포 현주를 인천부미생정(彌生町)일번지에둔 왕조생(王應生)X。)과 그의처 ...(鄭阿實)X。)이다 자기집에서 아편을 밀매한다는것을 인천서에서 탐지하고 지난일일오후 열한시 삼십분경에 경관대가 전기주소에가서 외보를 포위하고 전기 양의 부처를 체포는일방 증거품으로 아편다수와 아편흡연기구를 압수하야 취조한결과 밀매사실을 자백하엿스나 아편의 출처를 부인함으로 주공중인데 드른바에의하면 지나왕래의 선원과 결탁이잇는듯하다하야 취조에따라서는 확대될지도모른다고한다

新穀貯藏을奬勵 開豊郡農會에서斡旋

【開城】 개풍군농회(開豊郡農會)에서는 농촌개생을 도모하기위한복적으로 금년내생산한신곡은 즉시관매치말고 가급적농어창고에저장해두엇다가 내년에유리하게팔도록 힘쓰기위해서 개성월사개소에 유만가마니들수용할창고를공개하고 일반농가와지주에게 이용하야 창고를 이용토록 장려하는중이라는데 그간사금이필요한경우에는 보관주를담보로하고 시까지의약판한인근도로해서 일보(日步)일전삼리(一錢三厘)가량의저리로 융통할수잇도록 알선해주다하며 또는공동판매도알선해서 유리하게 팔어주기로되엿다는바 창고소재지와 수용력은 다음과갓다

▲開城本廳=三萬叺
▲月尾支廳=一萬叺
▲大聖支廳=一萬叺
▲光德支廳=一萬叺

警察部射擊大會 來四日獐鶴里서

【春川】 학례에의한 강원도경찰부추계사격대회(江原道警察部秋季射擊大會)는 오는사일 동면장학리(東面獐鶴里)사격장에서 행하리라는바 교양소생(教養所生)도아울러 행할것으로 일반래빈도환영한다고한다

吸血鬼魔女의罪狀 白日下에遂暴露
取調警官도啞然失色

【春川】 못사나이의 노름거리가되여 추악한생활가에서 인생을저주하며 눈물로 세월을보내는가이엽는 이간유미끼로 파분의사욕을 채우든 마수가 드듸여경찰에검거되엿다

조사한바에 의하면 김화읍(金化邑)에서 요리업을 하던 정소사(鄭召史)X。)는 자기집에서삼백여원의 전채금을주고 사용하든 충남천안읍내리(忠南天安邑內里)양이월(梁二月)의 딸 김춘분(金春芬)X。)이가 상당히 일반에게 환영을 바듬으로 항상만족하여 오든중 이에 차금이거이갓나게되자 전기정(鄭)은 춘분(春芬)을 꾀여 너는 내동생과가트니 나와 춘천(春川)으로나가서 큰돈을벌자는등 그리고너의 채금은 아직도 그냥남어잇스니 물어내어야된다고 거즛말로협박을하는등 위협을가하는동시 춘분(春芬)의 본집에서압가하야 자기의호적에잇는 자기의동생 정봉애(鄭鳳愛)X。)로꿈여가지고 지난구월중순 춘천읍대화정(春川邑大和町)춘양관(春陽館)에와서 교묘한수단으로경찰서에 난주(蘭珠)로 저식수속까지하고 전기정소사는 그요리집에머 정률 어더가지고 난주의 거동을 감시하며 시간대(時間代)로 수입되는것을 횡취하며 경성(京城) 인사소개업자김대식(金大植)과연락을 취하야오백원에 팔어먹으려든것을 춘천서 취형사가 탐지하고 악당을임의라진하야 엄밀한취조를계속중이데 이와가티 사람을팔구어언국을욕여교묘히 속인것은처음하는일이라고 취조경관도상당히 분개하고잇다고한다

危險地帶殖銀아페서 自動車荷車衝突
負傷荷車夫生命危篤

남대문통 이정목 식산은행압 전차선로는 그곳의교통 정리상 대단히 위험한것이라고 여러방면에서 문제꺼리가되엿스나 그것이 결국철도국과 경찰당국의 권위잇는 연구에서어든 이상적설계라고하는것인데 마치내 그지점에서 자동차와 짐구루마가 충돌하얏다 일일밤 늦하시반경 남대문통이정목 경천본사압 예의급 카-브지점에서 광주군대왕면자곡(廣州郡大旺面紫谷)이선순(李先順)X。)이가 짐구루마를끌고 남대문으로향하야 진행하고잇슬지음에 마즌편에서 오던일광(日光)택시 이인수(李寅秀)X。)가운전하는 경기천삼백사십삼호와 충돌하야 이선순은중상 김섬진병원에입원가료중인데 생명이위험하다 종래이사고발생지점은 전차선로가 중앙에서 갑작히동편으로 굴혀깔려잇서서 그곳을 지나단니는차마가 좌측통행을하기거북하게되여 잇슴으로 전기이선순도 도로의중앙에서방황하다가 자동차와 충돌된것인데 교통의위험지대로서 문제가 이던곳이다

自給自足을目標로 農產物加工講習
"다꾸앙"과무말랭이製造를爲主로 府永登浦出張所에서開催

【永登浦】 경성부에서 일년간소비되는다꾸앙(일본짠지)은 약화만통으로 그중약칠할이 내지로부터 이입되는현상이오 무말랭이가튼것도 매년소비고 칠천오백판에 달하는바 전부가 내지로부터 수입하는상태임으로 경기도와 경성부에서는 자급자족을목표로 이를 수입을 일화케하는동시에 농가경제의 윤택을기도게획하야 지난삼일일부터인일까지 이일간경음 공립농업학교장해북성(井邑公立農業校長海北城)씨와 도부농무과와 권업과관계직원오명을 강사로 경성부영등포출장소강당에서 부내독농가소채조합관계자를 비롯하야 관전(廣津)시흥광주고양(始興廣州高陽)등 각군권업기수등칠십여명을 회합케하야 하리적연구와 실제기술적강습을 밧게하엿는데 사업의 발전에기여함이만하얏다

街頭로進出한 眞珠의신세

【仁川】 요사이인천항구에는상점거리마다 골목모퉁이마다 어여뿐아가씨들이 날카로운갈을 돌고서 어떠한분이든지 운수만조흐면 백여원짜리『진주』를 어들수잇다고 외치는바람에 오는사람 가는사람 남녀노소를 물론하고 뭇소리-휘재수나 할겻처럼너도 나도야단법석이다 그런데 그여자의말이 현금일원을내고 궤짝속에잇는 조개를 마음대로 골라잡아가면 운수만조흐면 오륙십원이물론 백여원짜리진주를 어들수잇다는것이다 그러나그것이 정말인가 그짓말인가? 어떤허영에뜬 청년이일금일원야를 내여노코 한번 호기만장하게 칼을집어 조개를까보니 파면 거짓말은 아니다 녹두알 파알만식한것이 잇기는하나 이것이 정말 진주인지 또는 가짜인지 알도리도업고 또정말 진주라면 갑슨 대관절얼마나가나 하고 이것을 가지고시내 모금은상점에가서 이놈이진짜요 가짜요 좀 진단을청하엿다 이에 이를 검시한결과 자세한회답은 하지안코 어물어물할수박게 이러다가는 진주시세도 떠러질모양 하기야 진주도양식하는 세상이지만 양식하는진주라고 밧듯이 갑이 싸라는법은업다 다만 그수가 적음으로 진주도 보석(寶石)축에 들게되는것인데 보석이 거리로 진출하게 되엿스니 보석갑이 떠러질것이 큰일이다

蠶業座談會를開催
技術的振興策討議
非常時下의對外輸出品重要性에비치여
官民關係者七十餘名會合

경기도에서는 농촌경제의 중요한 한모를 담당하고잇는 잠업에대한 기술적지도책을 토의하고저 도산업과의 알선으로 업자와 관계관리가 한자리에모혀안저서 잠업간담회를 열기로되엿다한다 간담회는 오는사일오전열시부터 소사(素砂)에잇는 경기도립 원잠종제조소에서 열리리라는데 회의에는 도내에잇는 잠업각부문의 중요당업자와 및 잠업관계관공리 도합 칠십여명이 참석할터로 주로 잠업진흥에관한 기술적문제를 중심으로 격의업는 의견의 교환이잇겟스나 더욱이 요즈음 비상시라 중요국외수출산업으로서의 잠업이 질머저야할 비상시적임무가 배가된세움이여서 이문제에 대한 토의도 잇슬터로 이러의미에서도 이번간담회의 성과는 기대가크다

새町會 새氣焰 巡聽記

長沙·觀水·鍾三町會

時局部를特設 町民訓練에注力
㉖ 衛生과教化施設에도關心

장안갑부만히모여 살기로 유명한청계천(清溪川)연변을 끼고 내려가다가 수표다리(水標橋)께서부러 관수교(觀水橋)에이르는 관수정(觀水町)정회를 차자가니 구정회사무소는 업서지고 새로히장사정 관수정 종로삼정목 정회(長沙町、觀水町、鍾路三丁目町會)라는 간판이 걸려잇다 이번 정회 한변동에우에 적은 세동리가 합친것이다 장안일대로 종로거리를 아페두고 뒤골목 차지를한 이동리에는 이십만원이상의 부호가 삼십여명이나 된다하니 다방골에 지지안케 부자만흔동리이다 더욱이 이동리에는 중국인거상들이 만키로도유명한데 사변후에 만히귀국하고도 현재남아잇는 수만처도 사십여호나된다 사변직후 이들의 귀국한다는소리가 장안상업계에 폭탄을던진다시피 큰위협을 준일이잇스니 이들이 장안경제계에커다란존재가 되여잇는것은이것으로 미루어보아도 가히짐작할수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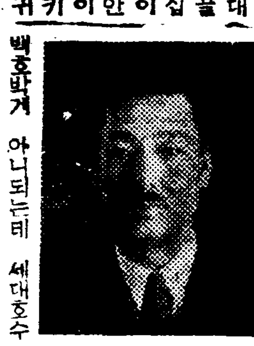
○……○

현재이동리의호수를 보면양옥백호밧게 아니되는데 세대호수는배수인 일천이백여호나된다이로미루어보면 장안에서 비교적부유하다는 이동리에도 다른동리에지지안케 경방사리하는 이들이만흔모양이니 주택난이얼마나심한가는 이것으로미루어보아도 가히짐작하겟다 ... 중에 행낭사리하는이들의 수효는 빼진모양인데 이들을합친수의총인구가 오천육백여명으로 다른정회에비하야보면 놀나울만치 살림사리가 큰정회이다 역원들을보면 총대는변호사최백순(崔白洵)씨 부총대는천원정일(淺原政一)씨 김용호(金用浩)씨 이고 회계역은 윤조우(尹鍾愚)씨이며 이외에도 구장이여덟명의원이 삼십명에 사무원네명이잇다

○……○

정회사무소를 차저가니 총대는 마침시골에 볼일보러가서업다하며 역원들끼리 다음과가리 번갈아가며말한다

우리정회에서는 특히 위생시설과 교화문제에 힘쓰고잇습니다 다행히 정내에 화광학원(和光學園)과 개명학원(開明學院)등이 잇스므로 이교사를 이용하야 부인들이라든지 혹은 취학치 못한 빈민 아동들을 위하야 야학과 강습회가튼 것을 열기로 햇습니다 그리고 시국부(時局部)라는것을 특히실시햇는데 이것은정민들에게 때때로 강연회혹은 영화회등을 개최하야 시국인식을 철저히 시킬려 정민간의 친목가튼것을 위하야시설한것입니다 아즉은재정확입이 못되여 실시를 못합니다다만 차차실행할방침이고 정회비가튼것도 수입만흔 이들에게는 부담을조만케하고 수입이 적은이들에게는 부담을 적게하얏습니다 운운



(사진은총대 최백순씨)

仁川에出生激增
十個月에二千三百名
死亡은줄엇고婚姻은늘엇다

【仁川】 인천부내 금년도에드러서 출생한수효를 인천부 호적계의 통계에의하면 일월부터시월말까지 출생한 제이세의국민이 이천삼백이십구명이나된다이를신일만 부민에 할하면 머지안어 십이만의 수자를보리라하며 금년내에 인천에서 원앙(鴛鴦)의꿈을 지운수는 칠백구십여쌍에 달하엿고 금년내에 황천객으로된인천시민은 일천사백여섯이나 사망에비하면 일천이연동기비하야 이십여명의 증가이리한다

搜索願提出

【保寧】 보령군주산면화평리(保寧郡珠山面花坪里)에 거주하는김형영(金炯榮)X。)은 정신에이상이잇는자로서 지난사일에 어데론인지 행방을 감추엇스므로그의가족들은 각방으로 수사를하다가찻지못하고그의친척되는동군동면풍오리(東五里)이창우(李昌雨)X。)부터 지난이십칠일에 보령경찰서로 수색원을 제출하얏다는데 그자는 회색주의구리와 바지를입고나갓다한다

地方人事

▲金世玩氏(前京城地方法院仁川支廳判事)退官人事次本報仁川支局來訪

지프테리아 豫防注射

—용산서관내『지프테리아』예방주사는 다음과가티시행한다는데 아직주사를 맛지아니한유아는 틀림업시 맛도록하기를바란다하며 특히주의할것은 한아이가 세번씩마저야된다고한다

場所	時日		
三坂小學校	七日	十六日	二十五日
元町小學校	同	同	
阿現小學校	八日	十七日	二十六日

(每日午前九時부터 午後四時까지)

年賦定期貸付
普通銀行業務
株式會社 朝鮮殖産銀行
頭取 林繁藏
資本金參千萬圓
京城府南大門通二丁目百四十番地ノ一
日本銀行代理店 日本勸業銀行代理店 朝鮮貯蓄銀行代理店
全鮮各地에支店派出所六十四個所及內地大阪에支店잇合

藥으로 滋味나는 도모으기
製藥士 養成講義
무슨藥이라도自由로製造
◇立身成功의門
入學案內無代進呈
東京市·芝區新橋·六ノ四八
日本通信製藥學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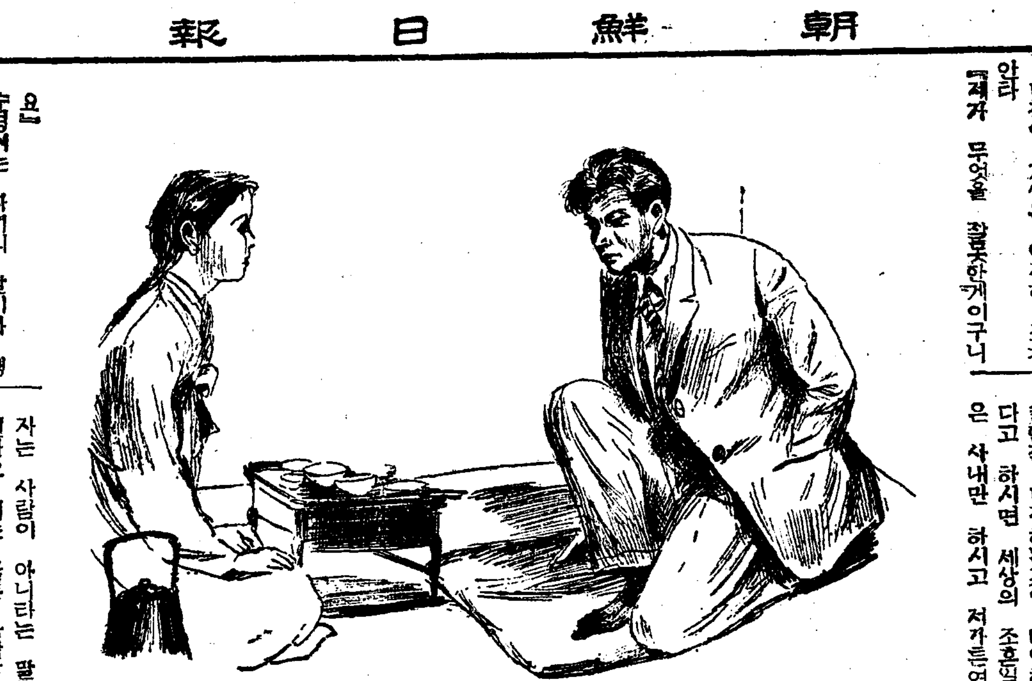
朝鮮文學讀本大發賣中 朝鮮日報社出版部發行

그어머니의滿足과보람은 森永ドライミルク를 주어서어든것입니다 消化가조흐므로뱃속이편하고애기는이러케健全하게토실토실해젓습니다
森永煉乳株式會社
D54

長篇小說 薄命 (133)

韓龍雲 作 / 鄭玄雄 畵

결혼 三十



아무리 여름이지마는 밤기운이 조금 서늘하던지

『이것은 새술입니다 따뜻한김에 잡수서요』

순영이가 퐁퐁 따르는 술에서 실안개가튼 김이 훨훨 도는듯 하다가 흐려진다 그것을 맥없이 드려다보고 안젓던 대철이는 별안간에 한숨을 쉬고 천정을 처다보더니 술잔을 드러서 단숨에 마시고 안주도 먹지 아니한채 손까지를 끼고 시룽없이 벽을보고 안젓다

『후ー』

『선생님 웨그러서요?』

순영이는 눈이 휘둥그래 가지고 못는다

『아닙니다』

대철이는 눈도 돌리지 아니하고 힘없이 대답한다

『무엇이 불쾌하서요?』

『아니요』

대철의 겨색은 여전히 조치 아나

『제가 무엇을 잘못한게이구니…은 내가 내야지오』

『아니야요 제가 술한잔 대접한게야요 술값이 다 뭐야요』

순영이는 이맛살이 조금 찌푸려진다

『이게 순영씨 댁 가트면 그도 혹 모르지마는 남의집에 계신터에 어떠게 술을 내실수가 잇나요』

『그것은 염녀마서요 여기술로 선생님을 대접 하는것은 아니야요 웨 제가 남의술로 선생님을 대접하겟서요 제게도 그만한 술값은 잇서요 제가 또박또박처서 회계를 할터이니 조금도 찾괴하게 생각마시고 만히좀 잡수서요』

『그러치만 순영씨가 푼푼이모은돈으로 술을 주신다는것은 더욱 미안한일이 아니야요?』

『그것이 미안한 일이야요? 그러면 선생님은 죽을 사람을 살려주시고도 그것이 대단치안흔 일이라고 하시면서 선생님 손에 살어난 저로써 술한잔 대접하는것이 미안하다고 하시면 세상의 조흔일은 사내만 하시고 저거튼여자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슴이언가요 저는 몰튼 사람답지 안저잇는 세상에 뭄드러는 은인에게 술한잔 대접하는것까지 미안할 위인은 아닙니다 그것만은 용서하야주서요』

말을 마치는 순영이 기색은 주연(愁然)한듯 하얏다

『감사합니다…………』

대철이는 뒤말을 생각하는듯 하다가 고개를 조금 흔들고 포켓드에서 손을 빼더니 다시양복저고리 양섬을 여미면서

『자 그럼 가겟습니다 오늘 대단히 감사하얏습니다』

대철이는 순영이가 만류하는것도 불고하고 나가버렷다

黃金座今週映畵 (十一月三日부터)

〃海底下의科學戰〃

이영화의이야기는 미국의과학자『노ー톤』박사가 옛날영화를 사랑하든『아트란티스』라는 나라가 몃천년전 대변동으로 대서양(大西洋)바다미테 함몰되엿는데 그나라에는 아직도 자손이 살어잇서서 우리가사는지구의 세계를 능가(凌駕)할수잇는 파학을가지고 지진(地震)의 힘을 빌어 우리인류를 멸망시킨다는것을 얼어가지고 해저에서 일대과학전이 일어난다는 일종스펙타클영화다

이와동시에 봉철하는영화는 편강천혜장(片岡千惠藏)과 시천춘대(市川春代)주연의 업평천태랑(業平千太郎)과 일활의경희극 신서학왕래(新西鶴往來)를상영한다 그리고 예는신금으로 가수김해송(金海松)의 신작발표회(新作發表會)를 한다고한다(사진은 신서학왕래 의 한장면)

海外短信

巴里서新映畵出演 歌姬그레ー스·무어

한때는태평양을건너 일본내지에까지오다던 메트로·폴리탄의 세계적소프라노가희(歌姬)『그레ー스·무어』는 그동안 여름휴가를 남불란서(南佛蘭西)『무ー쟝』에서지낸후 지난구월상일부터 파리(巴里)근교인『조안빌』에 잇는파라마운트촬영소에서 제작하는가극『루이즈』에 주연하기로 되엿다 감독으로는 무ー어양의선생인 불란서의 대음악가인『귀스타ー브·샤르판티에』가 감독하기로되엿스며『레ー너』가수로는『조르주·티르』가출연한다고한다 이음악영화제작판계로해서『무ー어』양의『시카고가극장』歌劇의출연은 명춘정월까지 연기하게되리라고한다 (사진은 그레ー스·무어)

劇團中央舞臺는 地方巡回公演準備

신극운동에잇서서 작금비상한활동을보여주던 극단중앙무대(劇團中央舞臺)는 지난팔월 공연이후 흥행주와출자주(出資主)사이에 개재해잇던여러가지 문제가 이번해결을보게되여 어떠까지사용해오던 극단도구(道具)기타일체를 동극단원에게 일임하기로 되엿다한다 그리고 지난이십오일동안 본보영등포지국(永登浦支局)주최의공연을마친후 불원간개성(開城) 연안(延安) 해주(海州) 사리원(沙里院) 평양(平壤) 진남포(鎭南浦) 인천(仁川)등지의순회공연을가지게되리라고한다

(모스코의) (밤은기퍼서)

待望의名畵 紙上巡探 ❶

〃모스코의밤은기퍼서〃의原題名은〃사보이호텔二一七號〃다 이作品은〃짜다ー크〃와 새벽을제작하야 獨逸一流監督의地位를차지한〃구스타ー브·우키ー〃監督으로 獨逸서 처음製作된모스크바를 背景으로한 로맨틱한 映畵다 帝政當時모스크바의 情緖가 濃厚하야 不遠封切될 今年度의 名畵中의 하나이다

새하얀눈길우으로〃토로이카〃가달린다 復活祭를만난〃모스크바〃의밤 때는世界大戰이 일어나기前이다〃토로이카〃에서나리는男女는 이〃모스크바〃에서도第一豪華롭다는〃사보이호텔〃二一七號室로 드러갓다 사보이호텔 二一七號室의女王 이女子의이름은『나스타ー샤』라고한다 이男子에서 저男子로 봉룡을내는나비와가티도라다니는 放縱의 女性이다 이한女子때문에 不幸하여진男子는 한두사람이아니다

할끼라고오는男子『세르게이』도 이女子때문에 서베리아에까지 流刑되엿다가 다시차저왓스나 드디어『나스타ー샤』에게 쫏겨나고말엇다

『세르게이』는 어떠한憤怒를품고 나스타ー샤에게서 離反당한그前男便『프요톨』과함께 술을마시며 언제나 復讐할것을 꾀하고잇섯다

이러한것을 알어차린 나스타ー샤는 호텔의給仕長인『앙드레이』에게로 마음을옴기엿다 그러나 앙드레이는女子를께感을받는사나이로서 어호텔의下女監督인『안나』에게 戀慕를當하고잇섯다

이날밤 앙드레이는 새로마저드린下女『다ー샤』란二十一歲의處女에게 愛情을느끼엿다 그래서 이날밤 일을끗내고 두사람은 밤거리에 나와 [illegible] 한婦人形舖, 華麗한 [illegible] 하고는 敎會에가서 復活祭의 新禱를드렷다

이러는동안 앙드레이는『다ー샤』의殉情에 비로소 感動되어 [illegible] 에게서 새로운 [illegible] 하엿다 막호텔로도다오자 二一七號室의『나스타ー샤』는 『다ー샤』의입은옷이自己옷을 훔처낸것이라고 [illegible]

달려들고『안나』도 함께맛장구를친다 그래서 二一七號室에드리가서 口論하는中에 銃聲이울리자『나스타ー샤』가 쓰러젓다그러나하男子가犯人으로도망처다

이런光景을본『앙드레이』는 새生活을 求하야 親友가 經營하는 舞臺우에서 노래를부르며『다ー샤』와 새로운生活을 시작햇다 그러나『안나』는 嫉妬의불꼿을 것잡을길이 업서 드디어『앙드레이』를 謀陷하야 密告하고말엇다 어것을안 그는 도망치기 시작하야 警官의追擊을避해서 어떤 주막집에서 나스타ー샤의그前男便『프요톨』을만나 그사람이眞犯人인 줄을알고 大亂鬪後에 프요톨은 인제 도망칠수업는것을 覺悟하고 피스톨로제가슴을쏘앗다

앙드레이는『다ー샤』를가슴에 안고 페테르브르그로 向하야 希望의 먼길을떠낫다

重要配役

앙드레이······한스·알바ー쓰
나스타ー샤······브리키테·호름나이
프요톨······얼레산다ー·엥겔
다ー샤······구스티·프ー버ー
안나······캐ー테·도르쥬

라디오 JODK

歌曲 (三日午後七、三〇) 金花香 趙點紅

一、羽調頭擧 적무인(寂無人)엄중문(掩重門)한데 만정화락(滿庭花落)월명시(月明時)라 독의사창(獨倚紗窓)하야 장탄식(長歎息)하든차에 월촌(月村)에 일계명(一鷄鳴)하니 애닷는듯하여라 (上祖明 李明漢作)

二、羽樂 만경창파지수(萬頃滄波之水)에 동동떳는 불약금이게오리들아 비슬금성숭정어 동당강성너시두루미들아 너떠단 물기괴를 알고 동동떳는 우리도남의님 거러두고 김히를 몰라하노라 (作者未詳)

三、還界樂

四、界樂 노세노세 매양장식(每樣長息)노세 밤도놀고 낫도놀세 벽상(壁上)에 그린황계(黃鷄)수탉이 화해처 우도록 노세노세 인생(人生)이 아침이슬이니 아니놀고어이리 (作者未詳)

五、編 문독춘추좌씨전(文讀春秋左氏傳)하고 무사청룡언월도(武使靑龍偃月刀)ー라 독행천리(獨行千里)하며 오관(五關)을 지나갈제 장수(將帥)야 고성(固城)북소래를 드럿느냐못드럿느냐 천고(千古)의 관공(關公)을 미신자(未信者)는 의덕(義德)인가하노라 (作者未詳)

家庭時間 【四日午後一時十五分】 住宅과保健 城大講師 崔羲楹

흔히 주택을말할때에는 방위(方位)를 말하게됩니다 그러나 이방위라는것을 어느정도로 과학으로 해치어보아서 올흔것은 접로적의문임니다 도호하는 집에는 엄청한 규격(規格)에 잇는것가려 생각해서 서울형(型)의 집으로는 대문조로 어방대청건너방 이렇게야주 일정한틀이엿는것 가틉니다 그러나 이방위니 틀이나거모두 쓸데업는것이고 먼저무엇보다도 우리의건강을위하야 적당한 건축이라야면 가장이상적 주택이라고할수잇겟습니다 우리재래형(在來型)가옥의 위생상결함(缺陷)이어더잇는가를 알어보고 당장에가장이상적보건을위한 주택은 어케해야만 될까를 말슴하야보라고합니다

田園移動

마을 區長씨집 소를 겨우 빌어왓습니다. 오늘은立冬 이란듯 [illegible] 中 夫妻가 시체말로 어저가어 토ー치카싱싱인데다가 낭중에 어른어된 그의맛아 또어떵습니까 [illegible] 中學校를 農業學校로갈요량이 거도 햇다나요 그렇든터에 크만 한편향 이웃에사는 어떤 갈독 李主家씨 [illegible] 高等學校쪽으로 단연 전향했다는데 [illegible]

처하고 고처해도 文양은번번히 벙싯거리고 조와하엿습니다 그리하야그는『다ー그만집어처고 평안히 농사짓든 시골서 살엇스면……』 [illegible] 누구나어시는것니다. 참!저ー편에아모러케나놓어누운新人社의郵春姬양은한못 처녀다웁습니다. 갈녀저온 어머니생각일까요? 몹시도 멜랑코리ー해뵈는데 간간히 무슨노래인가 엄숙으로 불르는모양입니다.

[illegible] 田園移動을 합니다. 때는 가을인데 어제야소를몰아 방을가는徐군이라지 두번이나 보며드고 테스트를 고 씨를 뿌리는 그것 이 펴 은마음에 겨워든지 하번、 어드(詩人)이나 석기지너을엇든 너지요, 무도鄕 十的인 風景을 [illegible] 울려집니다. 치 서쪽에 기

라디오드라마 海風(三景) 南海林 作 青春座 (三日午後八時四〇分)

★마라드오디라★

配役	
奉三	黃澈
龍女	東紅女
晶子	金鮮英
父	卞基鍾
母	柳海草

몽삼이 대판(大阪)으로 벌이를나간지는 벌써七년이나되엿습니다 고향에서는 언해용녀가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잇섯던것입니다『봉삼이는 거기서 하이카라를 어더서 재미잇게산다는데』……이러한말이 뭇편으로 들려온지 얼마후에 몽삼이가 돌아온다는소식이왓습니다 그날도어 적은포구(浦口)는 잔잔하게 맑게개엿습니다 배에서 내리는손님들중에서 몽삼이를 제일먼저 보기는 그아버지엿습니다 그리고 모양 아버지는 몽삼이를 넌짓이불러서『너는돌우 정자를데리고떠나거라』하얏습니다『아니야요 제가떠나랍니다』하여가라가 혼자 다시 배에올릅니다 포구의물은 여전히고요한데 배떠나는 무적(霧笛)소리만이 구슬프게 들리는것이엇습니다

라디오프로그람

三日(木曜)

◇午前七時五一分 (東)라디오體操(第一放送에依함)
◇同一一時五〇分 氣象通報
◇正午 (東)時報
◇午後零時五分 合唱(레코ー드)
◇同零時三〇分 뉴ー스
◇同一時 雅樂ー李王職雅樂部員 一、合樂 君ケ代 二、管樂 鳳凰吟 三、慶尙獨奏 燕大舞日之曲 四、合樂 海ゆかば 五、與樂 萬波停息之曲 六、管樂 瑞日和之曲 指揮雅樂師長 咸和鎭 李王職雅樂部員
◇同一時三〇分 獻茶歌披露式實況(慶會樓)ー朝鮮神宮奉賛殿으로부터中繼ー
◇同四時 뉴ー스
◇同六時 唱歌와이야기 一、唱歌 1、君ケ代 2、海ゆかば 3、明治節 4、進軍 5、朝日夕日 協成第常小學校兒童 피아노伴奏 李善信 二、이야기『明治節』宋光勳
◇同六時二五分 講演『明治天皇의聖德을追慕하야』高元勳
◇同七時 뉴ー스 天氣豫報
◇同七時三〇分 歌曲 一、羽調頭擧 二、羽樂 三、還界樂 四、界樂 五、編 金花香 趙點紅
◇同八時一〇分(東)軍歌와吹奏樂
◇同八時四〇分 라디오드라마〃海風〃三景 南海林作 配役(青春座) 黃澈 東紅女 金鮮英 卞基鍾 柳海草 青春座

四日(金曜)

◇午前七時五一分(東) 라디오體操(第一放送에依함)
◇同一〇時三〇分 氣象通報 料理製法〃사파사리다〃 日用
◇同九時一五分 (長唄)
◇同八時四〇分 (東)謠曲
◇同八時二〇分 (東)軍歌와吹奏
◇同七時三〇分 (東)座談會
◇同七時一五分 自轉線
◇同六時二五分 (東)講演
◇同六時 (東)스켓치
◇同二時一五分 (城)만돌린
◇同一時一五分 (東)舞臺劇
◇同一時 (城)雅樂
◇午後零時五分 (東)歌謠

第一放送

◇同一〇時〇分 레코ー드音樂
◇同一〇時 地方으로보내는뉴ー스 氣象通報 明日曆 翌日
◇同九時四〇分 (東) 時報 뉴ー스解說
◇同九時三〇分 ...

國手對抗碁戰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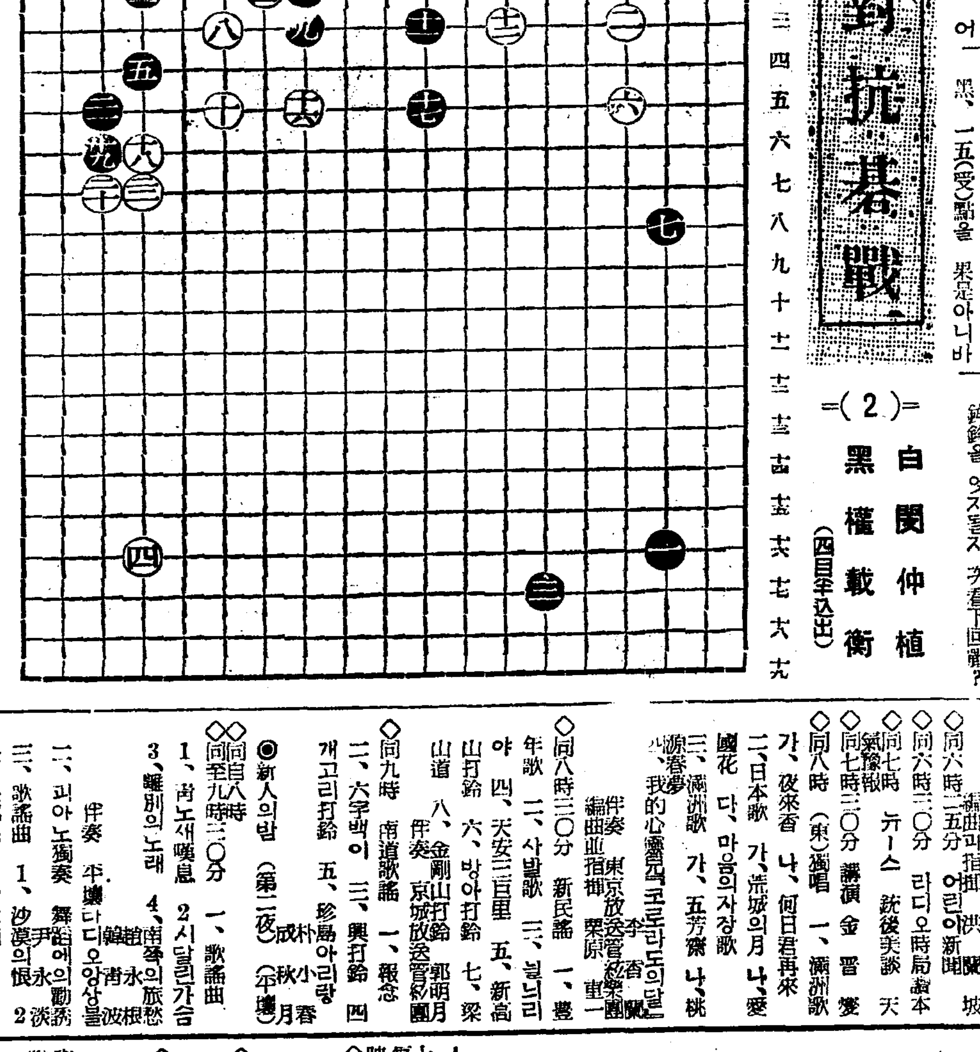
白 閔仲植 / 黑 權載衡 (四目半込出)

大勢는白이雄健 黑은實地를取해

權乘郁

白一二、庚의三은 桃源春夢에 陶醉 黑一三、巳의二는 邊小隅에沒頭奪勢 黑一一은 果然 既定한二間跳點이니 前鑑을보아알수잇다 黑이꼭한간띄워논 缺點으로因한所致며 白一二는 自衛上그럴뜻하나 너무無味한듯 어 急迫한時機를따다 快速部隊를빨리모라 敵陣攻略함이可하거늘 晏然히 邊一隅에서桃源의 봄꿈을 꾸는듯하다 어재나하면 白石隅二連將點이完强히 結陣하고잇는데 또三重으로備籬함이 너무綏延치안을가 是故로 黑一三、손을빼아(拔)黑陣左隅一將點을 雄擴하게되엿다 그러나 黑도 已往이면 小隅로先着치말고 中隅로出陣하엿스면 何如할가 小隅로 先着한關係上白一四(尖)點이다시 活氣를띄여先取勢할 가을(秋)이왓다 黑、一五(受)點을 果足아니바 潛在하다 黑一七은 自陣의孤軍을 救援치 不得已한 應召이며 白一六은 泰然히 先手를 빨아 黑左中隅에 걸처노흐니 黑一九도 엇지할수업는 立場에 白一八點을 놓리 아니놓수업다 黑二一(延)點은 必然的 手應이고 白二二(攝)點도 自然의 壓着이다 慾態의 보는바 現今으로는 大勢가 白이雄健한듯하나 黑의實地를 取한 精銳鋒鋒을 엇지될지 次看下回戰?

●一一 壬의三 ○一二 庚의三 ●一三 巳의二 ○一四 寅의二 ●一五 丑의二 ○一六 丑의五 ●一七 壬의五 ○一八 巳의六 ●一九 午의六 ○二〇 午의七 ●二一 午의五 ○二二 巳의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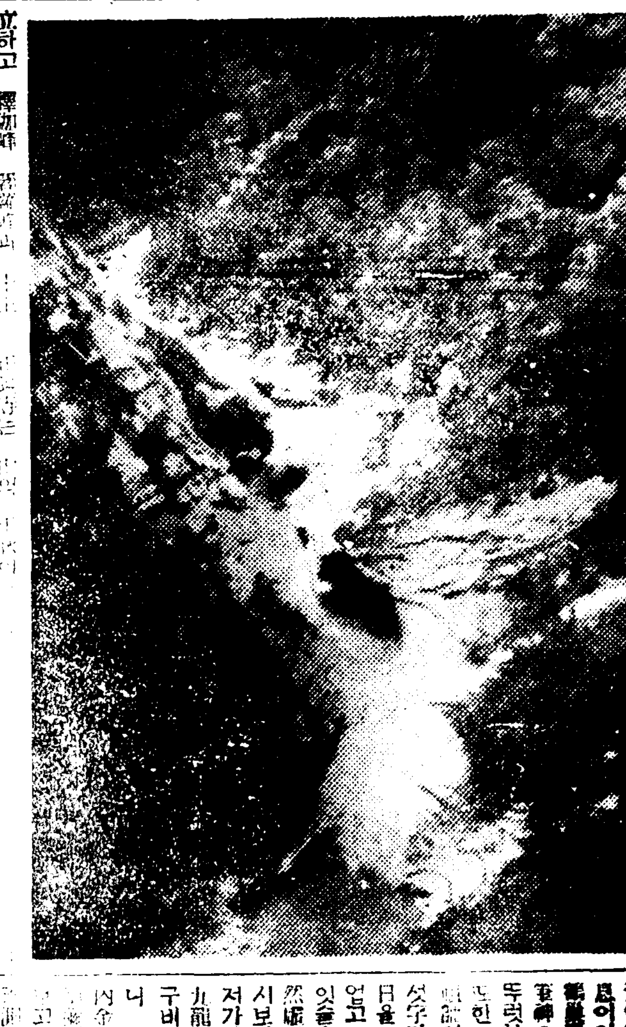


金剛巡禮 新作時調 內金剛歌 (一)

畵 金錫九

(解題) 湖表和尙을차저서 인사하고 表訓寺의 來歷을무르니 그는 新羅文武王時代 表訓祖師의 創建이며 金剛山은 부처님의 靈場으로 法起菩薩의 所住處라하야 法起菩薩을 더욱이 깁이 대단하며 本寺는 法起菩薩의 本堂입니다 그리고 歷代朝家와 因緣이기퍼 宮中遺物이 만사고 더욱이 元나라皇室에 旺盛하엿다 至正年號가박힌 銀文銅香爐香瀛等은 서그遺物을 나섯지求景하고 殿까지 傳來한다고합니다 나는 法起菩薩殿에드러가서 參拜하고 正陽寺를 찾기로하엿다

(자진모리) 初調 그和尙 作別하고 正陽寺차저갈제 表訓寺뒤로나와 北으로 올라가니 욱어진 森林이 하늘을 가리엇는데 어리불고 저리울라 正陽寺로 차지서서 歇惺樓에 안저보니 放光臺 노픈데가 나서엿다 [illegible]



(중모리) 初調 金剛門을 드러가서 萬瀑洞口 當到하니 보이고들리는것이 모두다 氣絶하다 萬瀑洞은 쪽 [illegible]

(無拍子진양) 京制調 [illegible]

北律賓遠征朝鮮代表選拔兼 第五回全朝鮮拳鬪選手權大會

日時 十一月四、五、六日午後七時

場所 太平通 朝鮮日報社 大講堂

主催 全朝鮮拳鬪聯盟

後援 朝鮮體育協會 朝鮮日報社

家庭日記 前後篇大會 軍用列車 第一劇場 電光 一七五五

桃花劇場 桃花町電話(光)二〇二三 十一月一日부터四日까지四日間 特別名畵鑑賞週間 每日晝夜二回 ...

新富座 京城新堂町 電話本局(五)六七七七番

東洋劇場 十月三日晝間부터四日間大興行

團成社 電光三四九二番 『가을의哀愁』 『戀愛合重線』

朝光 十一月號 定價四十錢